

국힘 대선경선 ‘양강구도’ 재편

홍, 야권 후보 적합도 우세 앞세워 뒤집기 시동
윤, ‘국정원 정치공작’ 프레임 부각, 보수결집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이 양강 구도로 재편되는 형국이다.
사실상 독주하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고발사주 의혹이라는 돌발악재를 만난 사이, 홍준표 의원이 무서운 속도로 치고 나가는 구도다.
진위와는 별개로, 검찰총장 재직 시절 야권 진영과 접촉하려 했다는 의혹만으로도 윤 전 총장에게 적잖은 타격이 될 수 있다.

선 시작에 맞춰 의혹이 보도된 것은 정치 탄압 그 이상”이라고 말했다.
역설적으로 고발사주 의혹을 놓고 여야 충돌수위가 올라갈수록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 전 총장으로서 ‘정치공작 피해자’ 프레임을 통해 보수 유권자들의 지지세를 다지는 반전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유의 ‘사이아 화법’으로 지지세를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홍준표 의원이 이번 의혹을 바라보는 관점은 확연히 다르다.
홍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거짓을 두고 하는 것이 정치공작이고, 팩트가 있다면 공작이 아니라 범죄”라며 “후보 개

인의 문제에 담이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의 문제에 보수 진영 전체가 단일대오로 대응하는 방식에 선을 그은 것이다. 윤 전 총장을 고발사주 의혹에 묶어 놓고, 자신의 추격 동력을 강화하겠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여론조사 흐름의 상승세를 가속할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6~7일 전국 만 18세 이상 2,019명을 대상으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2%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한 결과, 보수야권 대선후보 적합도에서 홍 의원은 32.6%를



자영업자 격려하는 안철수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2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한 호프집에서 코로나19 대응 전국 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과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기록해 윤 전 총장(25.3%)을 7.3%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윤태근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홍 의원이 보수 진영 양강 주자에 걸맞은 역량을

갖췄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그를 향한 검증의 수위도 올라갈 것”이라며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인사말하는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12일 서대문구 신촌 UCU 라운지에서 열린 청년싱크탱크 토크콘서트 ‘청년 희망을 해킹하라’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사퇴 완강’ ...여 지도부 고심

경선 이후 처리 가능성 ‘무게’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의원직 사퇴 입장을 고수하면서 당 지도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연일 계속된 이 전 대표의 간곡한 요청에 적극적으로 만류하던 지도부도 일단 한발 물러선 모양새지만, 사적인 처리를 추진하더라도 대선 경선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최고위원은 12일 “이 전 대표의 결기나 진정성은 지도부도 모르지 않지만 당장의 사적인 처리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경선 종료 이후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는 게 최고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지도부의 속앓이에는 여러 상황이 맞물려 있다.

우선 경선 후보의 의원직 사퇴는 추후당이 원팀으로 대응하는 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자리하고 있다.
자칫 연쇄적 사퇴 파동으로 이어지면서 대선 본선에서 단일대오가 흐트러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이낙연 캠프의 선대위원장인 설훈 의원도 의원직 사퇴를 선언할 예정이었으나 지도부 설득에 돌아선 바 있다.
아울러 경선 후보 중 현직인 이재명 경기지사, 김두관 박용진 의원의 현직 유지 문제도 덩달아 경선 과정에서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
일단 지도부는 13일 최고위 회의에서 다시금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생각이다.
송영길 대표는 전날 대구·경북 경선

직전 이 전 대표와의 독대 자리에서 최고위원들과 더 논의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서도 사적인 처리 여부에 대해 “상의해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도부가 ‘즉답’을 주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이 전 대표는 이 전 대표대로 난감해하는 표정이다. 본인 결단이 자칫 정치쇼로 평가 절하되면서 사퇴 카드의 진정성이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전 대표는 사퇴 선언 당시 “모든 것을 던져 정권을 재창출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내비쳤다.
캠프 관계자는 “사적인 처리가 늦어질수록 그 각오와 의지가 꺾힐 수 있는데 그걸 모르는 척하는 것은 지도부의 책임 방기”라며 “후보의 판단을 존중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오늘부터 대정부질문... 고발사주 의혹 쟁점

여, 국정 성과·민생경제 회복 점검
야, ‘박지원 게이트’ 진상 규명 요구

국회는 이번 주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13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4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15일 경제 분야, 16일 교육·사회·문화 분야까지 나흘간 이어진다.
여야를 통틀어 하루 11명씩 질문자로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힘 4명, 정의당·국민의당·열린민주당 등 비교섭단체가 1명씩이다.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고발사주’ 의혹이 쟁점으로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의혹의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최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만난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논쟁은 한층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윤 전 총장 측은 ‘박지원 게이트’ 규정하고 여권발 정치공작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 전 총장 재임 중에 검찰권 남용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따져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의힘은 윤 전 총장과 김용 의원 등에 대한 고위공직자수사처 수사의 적법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한편 ‘박지원 게이트’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연론중재법도 여야의 충돌 지점이다.
특히 마지막 날인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는 소관 문제위논의를 주도했던 민주당 전용기,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각각 질문자로 나선다.
민주당은 “가짜뉴스의 폐해와 피해구제 필요성을 적극 알리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대선을 앞두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라며 맞서는 형국이다. 그밖에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편성 등도 주요 이슈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백신 확보 노력, 방역 대응, 민생경제 지원책 등을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파주기식 추경’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겠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대선의 날 ‘미니총선’도 열리나

최대 5~6곳 박빙 싸움 예상

내년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미니 총선’ 급으로 커질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서울 서초갑)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서울 종로)까지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면서.
우선 부친의 부동산 법령위반 의혹이 나오자 사퇴를 선언한 윤 의원의 사적인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권 승부수로 사퇴서를 던진 이 전

대표의 경우 일단 지도부는 신중한 기류이지만, 본인의 의지가 워낙 강해 결국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회계부정 등으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민주당 정정순 의원(경주 상당) 지역구도 재보선이 예정돼있다.
재보선 지역이 더 늘어나 5~6곳까지도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민주당 이규민(경기 안성) 의원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무소속 이상직 의원(전북 전주)의 지역구가 후보자가 될 수 있다.
재보선 판도는 대선과 같은 ‘박빙’

의 싸움이 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같은 날 치러지는 대선 구도에 연동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아직 의원 사직서가 처리되지도 않은 상황이지만 정치권에서는 벌써 ‘정치 1번지’ 종로의 차기 후보군 이름이 오르내린다. 종로는 정치적 상징성을 고려할 때 거물급 주자들의 빅매치가 예상된다.
민주당에선 임종석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의 이름이 거론된다.
국민의힘에선 현역 당협위원장인 정문헌 전 의원, 작년 총선에서 낙선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의 이름이 나온다 /연합뉴스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의료기관 세탁물 전문처리 기업!!]

호남 최대 최첨단 세탁시설 완비,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으로 철저한 품질관리, 효율적인 관리로 의료서비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세탁 전문 시스템을 갖추어 친환경 세탁 문화를 위해 연구와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치(연속) 세탁기



다림시설



윤반카트 고온소독 살균



(주)백양실업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신기길 93 T. (061)392-7900